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제74차 정기총회 개최



신임 총회장
엄하석 목사
주성교회

대통령 선거…하나님 편에 서서 판단과 선택하며 적극 참여해야

제, 한미동맹, 한국교회의 신앙의 자유를 지속 시켜 나갈 수 있는 대통령을 선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또한 한국교회에 깊숙이 침투해 무각각해진 WCC, WEA 등 종교다원주의의 사상과 혼합주의를 비롯, 이단 사이비를 배격하고 오직 진리의 말씀을 사수하기 위해 헌신할 것을 다짐했다.

총회에 앞서 드린 예배는 교단 총무 오세준 목사의 사회로 시작, 총회장 김영준 목사는 인사말에서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가 위협받는 너무 암울하고 담담한 시국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74차 총회 주제처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되 하라'(롬 12:2)라는 주제로 개최됐다.

총회는 이날 전쟁과 기근, 핵 위협 등 세계 정세의 위기 속에 국가안보와 평화정책을 위해, 회해와 협력의 바다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국가 위기상황에서 감작스레 다가온 6월 3일 대통령선거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

이어 부총회장 이인호 목사의 대표기도,

교단 회계 백영자 목사의 성경봉독, 은혜와 진리 장로성가단의 찬양, 세계하나님의성회 총회장 도미니 요 목사의 설교로 이어졌다.

도미니 요 목사는 설교를 통해 세계하나님의성회가 크고 놀라운 부흥성장을 이루는데 조용목 목사님과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가 큰 역할을 감당해 준 데 대하여 감사의 뜻을 전하며 총회를 축하하고, 이사야서 43장 18절과 19절 말씀을 본문으로 '위대한 내일(A Great Tomorrow)'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도미니 요 목사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로운 역사를 경험하기 위하여 과거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바릴 것을 과감하게 버리고 하나님께 행하실 새롭고 놀라운 일을 기대하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토아 행하면 하나님께서 새 힘과 능력을 주시고 훌륭히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

실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특별기도로 '우리나라를 위해', '한국 교회를 위해', '선교사를 위해' 임재홍 목사(제주지방회장), 조선남 목사(서울남서지방회장), 선교위원회 심용재 목사가 각각 주제별 기도를 인도했다.

축사시간에는 아마노 히로마사 목사(일본 하나님의성회 이사장), 전기총 17개 광역시도 226개 시군구연합회 대표 부산평화교회 임영문 목사, 예수교대한성결교회 총회장 좋은이웃교회 김윤석 목사의 축하의 말씀이 있었다.

계속해서 교단 총회장 김영준 목사는 73차 총회 임원들에게 공로패를 증정하고 30년 근속자 23명(이종원, 김상기, 이기성, 김종연, 임용재, 김기인, 이경진, 박승호, 이득상, 임영신, 장호순, 윤광진, 김경준, 신병설, 박용호, 정영진, 양희철, 김성수, 김영웅, 이진우, 정석현, 정세장, 배영철 목사)에 대한 근속패를 증정했다. 전국사모연합회를 섭계온 사모회장 이

을순 사모에게는 감사패를 증정했다.

이어 교단 재무 최정식 목사의 현금기도, 은혜와진리교회 장로성가단의 현금송, 교단 서기 장동근 목사의 광고, 정책위원회 조용목사의 축도로 예배의 모든 순서를 마쳤다.

곧바로 이어진 2부 총회에서는 각종 보고 사항들과 감사, 예산 심의 등의 회무처리 후 임원선출에서는 교단 한법제 제 84조와 교단 선거관리위원회 시행규칙에 의거해 총회장에 엄하석 목사, 부총회장에 이인호 목사, 총무에 오세준 목사, 서기에 문찬우 목사, 재무에 최정식 목사, 회계에 백영자 목사가 각각 선출되었다.

신임총회장 엄하석 목사(주성교회)는 당선 인사말에서 "우리 교단의 이름다운 전통을 따라 섬김과 혼신의 자세로 직임을 수행할 것"이라며 총회원들의 성원과 기도, 협력을 당부했다.

신임총회장 엄하석 목사 주재로 계속된

총회는 74차 총회 예산안 심의 및 결의, 각 지방회장 실행위원 자격인증 및 교단발전에 관한 건 등을 결의하고 제74차 정기총회를 은혜 가운데 마쳤다.

제74차 교단 총회에서는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강화 한국교회의 신앙의 자유 등을 지속해 나갈 수 있는 대통령이 선출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성도다운 판단과 선택을 하며 대통령 선거에 적극 참여할 것과 한국교회에 침투해 있는 이단 사이비에 대한 불감증을 올바른 복음 전파로 타파해 나갈 것, 올바른 복음전파와 사수를 위해 온 힘을 기울여 창조질서와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차별금지법 추진 저지와 동성애 반대, WCC·WEA 종교다원주의 반대, 특히 WEA 서울총회 개최 반대를 분명히 하고 집요하게 한국 사회에 침투해 오는 이슬람의 세력을 효과적으로 막아내는데 뜻을 모을 것을 밝혔다.



김소요, 타니구치 노부오 선교사 목사안수식

구원의 복음 땅 끝까지 전파 다짐

교단 총회(총회장 엄하석 목사는 지난 5월 19일(월) 오후 4시 교단 정기총회 후 은혜와진리교회 아기페성전에서 김소요, 타니구치 노부오 선교사에 대한 목사안수식을 갖고 선교사로서 사역자로서 땅 끝까지의 복음전파를 위해 헌신해 줄 것을 당부하고 선교사로서 장도에 오르는 앞길을 축복했다.

이날 목사안수 및 임직예배는 교단 총무 오세준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선교위원회 심용재 목사의 대표기도, 사회자의 성경봉독, 교단 총회장 엄하석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엄 목사는 마 22:34-40 말씀을 본문으로 '가장 큰 계명이란 제목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라고 전하고 "가장 큰 계명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



라는 것이며 이 두 가지를 통하여 예배, 교제, 양육, 사역, 선교에 헌신을 다하는 사역자들이 될 것"을 당부하고 축복했다.

이어 총회장 엄하석 목사 임무로 서야, 안수

위원들에 의한 안수, 착의, 악수례, 공포, 임직증서 수여가 있었으며 사회자의 광고 후 교단 총회장 엄하석 목사의 축도로 임직예배의 모든 순서를 마쳤다.

전국사모연합회(회장 이을순 사모)는 지난 5월 19일(월) 오후 2시 30분 은혜와진리교회 3층 세미나실에서 제13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신임회장에 손선희 사모를 선임하는 한편 한 회기 동안 사모회의 발전과 교회와 교단의 부흥을 위해 기도로 헌신할 것을 다짐하는 귀한시간을 가졌다.

회원들은 은혜와진리교회에서 열린 교단 정기총회 개회예배를 함께 드린 후 곧바로 3층 세미나실로 이동하여 전국사모연합회 제 13차 정기총회를 열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각종 보고사항을 받고 회무를 처리한 후 임원선출에 들어가 신임회장에 손선희 사모(홍제은혜교회)를 선출했으며 임원진을 개선했다.

고문 최해선 사모, 김양숙 사모, 전직회장



김양란 사모, 차경애 사모, 신동신 사모, 차주연 사모, 윤금자 사모, 김귀순 사모, 신명희 사모(감사직전회장) 이을순 사모, 회장 손선희 사모, 수석부회장 황인경 사모, 1부회장 안민

혜 사모, 2부회장 조은숙 사모, 총무 김세희 사모, 부총무 황복란 사모, 서기 김재희 사모, 부서기 이재선 사모, 회계 나명숙 사모, 부회계 이순선 사모, 재무 김길순 사모

‘글로벌 성경 인식 조사’ 결과 발표

성경보급, 세심하고 지역특성 반영한 접근 필요

세계성서공회연합회가 영국성서공회와 협력하여 글로벌 여론 조사 기관인 갤럽을 통해 전 세계 85개국의 9만 1천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글로벌 성경 인식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최근 세계성서공회연합회에서 발표한 ‘2024 세계 성서 번역 현황’에 따르면 전 세계 61억 명에 해당하는 인구가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성경을 접할 수 있게 됐다. 성경의 접근성은 높아졌지만, 성경을 읽고 삶에 적용하는지에 대한 활용 여부는 또 다른 측면이다. 이에 갤럽에 조사를 의뢰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경제, 정치, 종교적 요인을 기준으로 유사성을 공유하는 국가들을 7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발표했다.

그룹1-사할 지역: 무슬림 주류 사회. 경제적 요인으로 성경 접근과 참여가 어려운 상황. 열악한 지원을 가진 소수의 기독교인.

그룹2-동유럽: 쇠퇴하는 기독교 주류 사회. 일상 가운데 종교의 중요성이 낮아지고



있으며 세속화되어가는 과정.

그룹3-북아프리카, 중동, 중앙아시아: 무슬림 주류 사회. 정치적 요인으로 성경 접근과 참여가 제한적. 소수의 기독교인.

그룹4-라틴 아메리카: 기독교 주류 사회. 세속화되어거나 성경에 대한 관심도가 높음.

그룹5-북미, 서유럽, 호주권: 세속화된 사

회. 기독교 인구 감소화. 성경에 대한 관심도가 낮음.

그룹6-아시아: 다종교 사회. 성경에 대한 인식 부족. 소수의 기독교인.

그룹7-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기독교 주류 사회. 종교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성경에 대한 관심도가 높음.

“공명선거로 국민주권 지키자” 제도 개선 촉구

충남 기독시민단체들 선관위 앞 기자회견



충남기독교총연합회(총회장 김정태 목사)와 바른인권단체를 비롯한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선거의 공정성을 강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5월 13일(화) 충남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공명선거를 통해 국민주권을 지켜야 한다”며 선관위의 신뢰 회복과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공명선거 전국연합 총

남지부가 주관하고 충남 바른인권위원회가 주최했다. 사회는 한의상 목사(공선연 충남 지부 공동대표, 천안바른인권위원회)가 맡았고, 기도는 한철희 목사(서천 바른인권위원장)가 했다. 이어 이구일 목사(충남 바른인권위원장, 충남기독교총연합회 부총회장)가 ‘공명선거 촉구 성명서’를 낭독했다.

성명서에서는 “선관위 규칙, 법률 위반 소

지”…사전투표제 폐지 요구도 함께 촉구했다.

성명서는 헌법 제1조 2항을 인용하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주권 원칙을 강조했다. 하지만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특히 사전투표 제도와 관련한 불신이 극심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구일 목사는 성명서에서 “사전투표용지는 실물 증거가 부족하고, 관리관 도장이 인쇄물로 대체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공정한 선거를 위해 사전 투표제 폐지와 수개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앙선관위의 친인척 채용 비리 문제를 언급하며 “공명성과 공정성을 요구하는 기관이 정직하지 못하다면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일제 고문 순교 ‘주기철목사수난기념관’ 개관

5월 19일 개관 감사예배 드리고 순교의 정신 기려

한국교회와 나라를 지키기 위해 일제강점기 신사참배 반대와 독립운동에 앞장서다 평양과 의성에서 모진 고문을 당하고 평양에서 순교한 독립유공자 주기철 목사(1897~1944)의 남한 유일의 수난지인 경북 의성군 의성읍에 ‘주기철목사수난기념관’이 건립되어 5월 19일(월) 오후 1시 30분 개관 감사예배를 드렸다.

한국교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표적인 순교자 소양 주기철 목사는 장로교 목회자로 초량교회와 마산 문창교회를 거쳐 1936년 평양 선교학교로 부임하여 사역하던 중 1938년 4월,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1차 검속으



로 고초를 당하고 6월에 풀려났다.

그러나 두 달 후인 8월 ‘의성농우회 사건’으로 2차 검속되어 의성경찰서로 압송되어 모진 수난을 당하였다. 그리고 1939년 1월 풀려나 평양으로 복귀하여 사역하다 3~4차 검속을 당하여 평양경찰서에서 1944년 4월 21

일에 순교했다.

당시 주기철 목사의 남한 유일의 수난지인 의성경찰서의 건물이 일부 남아 있는 가운데 이를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 의성군과 출향 기독교 인사들을 중심으로 주기철목사 수난기념관사업회를 2016년에 발족하여 2017년에 한국기독교 역사사적지 제4호로 지정받아, ‘일제강점기 의성경찰서’ 그 역사의 현장에 기념관을 세우기 위한 10여 년간의 기념관 건립 추진 활동으로 2025년 5월, 주기철 목사의 순교(1944.4.21) 81년 만에 수난지인 의성에 기념관을 건립하여 개관하게 된 것이다.

노숙자 소외계층 자장면 나눔행사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이웃사랑 실천

(사)한국노숙자총연합회(총재 김호일 목사)·(사)한국소외계층총연합회(대표 이주태 장로)가 주최하고, (사)서울역노숙인자활센터(대표 최성원 목사)·(사)한국기부재단(대표 이주태 장로)이 주관한 ‘노숙자(자유인)·소외계층을 위한 자장면 한 키 나눔 행사’가 지난 5월 6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종로구

대학로 소재 (사)한끼나눔 앞 미션공원에서 펼쳐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뜻깊은 행사를 가졌다.

글로리아찬양선교단(지휘 김영달 목사)의 은혜로운 찬양연주에 이어 김마리 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1부 예배는 혼광희 목사의 대표 기도, 송용필 목사의 설교 순으로 진행됐다.

송 목사는 사 53:6 말씀을 본문으로 ‘목자 없는 양’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이어 “길을 잃고 방황하던 우리는 예수님이 대속적인 구속의 역사로 구원과 화평을 얻었다.”라며, “참 목자이신 예수님이 오늘도 길 잃은 양처럼 방황하는 우리를 찾고 계신다. 우리는 길을 잃지 않도록 항상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그 길을 따르게 해 달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자”라고 말했다.

2부 사랑의 나눔행사는 (사)한국노숙자총연합회 총재 김호일 목사·(사)서울역노숙자인자활센터 대표 최성원 목사의 참석한 노숙인들에 대한 인사, 노숙자 총반장 오성훈·소외계층 총반장 장양근 씨의 주최 측에 대한 감사 인사 순으로 진행됐다.



한기총, 필리핀 빈민촌 바세코마을에서 콘서트

킹스보이스오페라컴퍼니 재능기부로 클래식 선교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고경환 목사) 주최로 오는 7월에 열리는 ‘필리핀 빈민촌을 클래식 콘서트’가 역사적인 첫 해외 현지 선교로 기록될 것으로 한국교회의 큰 관심과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이번 콘서트를 위해 순복음원당교회(담임 고경환 목사)는 지난 5월 18일 주일을 맞아 킹스보이스오페라컴퍼니(대표 김혜영)를 초청해 후원금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는 이번에 콘서트가 열리는 필리핀 바세코 마을 문주연 선교사도 함께했다.

고경환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한기총이 지난 영남지역 산불 피해 지원에 이어 이번에는 필리핀 빈민 마을을 찾아 복음을 나눈다. 그곳의 아이들에게 음악으로 희망을 주고, 예수님이 전하는 귀한 사역에 우리 순복음원당교회가 함께하게 됐다”며, “여러분의 소중한 관심과 기도, 지원이 필리핀



쳐지는 곳이 바로 우리 마을이다”라며, “한기총에서 직접 이끄는 이번 콘서트는 우리 마

을 주민들의 자존감을 높여줄 것이다. 여러분의 관심이 우리 마을을 살린다.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5월 29일 가정의 달 감사예배 드려

한국기독교원로목사회,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사)한국기독교원로목사회(이하 한기원)가 지난 5월 29일(목) 오전 10시 30분 한국기독교연합회관 3층 그레이스홀에서 5월 가정의 달 감사예배를 드렸다.

1부 행사는 음악감독 주향기 목사(미아노 현정화 권사)의 친양인도, 한기원 대표회장 김성만 목사(누가선교회, 한국신학연합회 대표회장)의 개회선언 및 환영사로 진행된다.

렸다.

특별기도 시간에는 ‘한기원 부흥 발전을 위하여’, ‘한국교회 연합과 회복을 위하여’, ‘나라의 안전과 회복을 위하여’ 합심기도 했다.

3부에서는 부회장 배석철 교수(충북대 의과대학 교수)가 ‘건강을 위한 신의 선물 비타민 B3’ 특강을 전했다.

정희석 총장서리, 성결대 제10대 총장으로 인준

“소통과 협력으로 미래지향적 교육혁신 이끌 것”



성결대학교는 지난 5월 13일(화) 열린 제103-7차 총회 실행위원회에서 정희석 총장서리를 제10대 총장으로 만장 일치로 인준했었다.

다고 밝혔다.

정희석 신임 총장은 2001년 성결대 교수로 임용된 이후 기획처장, 대외홍보처장, 산학협력단장, 융합대학 학장, 교학부총장, 부

총장(대외사업) 등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하며 대학의 성장과 체질 개선에 중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특히 평생교육원장과 일자리사업 단장으로서 지역사회 연계와 학생 진로지원 강화에 기여한 공로가 높이 평가됐다.

정 총장은 국립 경상대학교에서 경영학 학사 학위를, 일본 고베상과대학에서 경제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학문적 전문성과 더불어 실무 경험을 고루 갖춘 그는 한국재무관리학회 상임이사, 안양시 4차산업 운영위원, 국토교통부 산학협력단장, 융합대학 학장, 교학부총장, 부

학계, 산업계, 행정 현장을 잇는 가교 역할을 수행해왔다.

정희석 총장은 인준 소감에서 “성결대학교와 함께한 지난 20여 년의 시간이 저에게는 소중한 자산이다”며 “앞으로도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대학의 정체성과 사명을 지켜내고 교육 혁신과 산학협력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대학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헌신하겠다”고 말했다.

성결대학교는 정 신임 총장의 취임을 계기로 교육혁신, 산학연 협력 확대, 지역사회 공헌 등 전방위적 발전 전략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예총연, 제20회 정기수련회 개최

“화목함으로 부흥하는 예총연 되자” 다짐

(사)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연합회 제20회 춘계수련회가 지난 5월 8일부터 9일까지 오륜비전빌리지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이번 수련회에는 전국 각지에서 100여 명의 회원들이 함께한 가운데 예배와 부흥회, 교제와 나눔의 시간으로 채워졌다.

인사말을 전한 대표회장 강용희 목사는 “이렇게 좋은 날, 춘계수련회로 모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예총연을 세우시고 비전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연합으로 나아가길 원한다”라며, “회원교단과 단체가 주

님 안에 화목함으로 부흥하는 예총연을 향해 나아가자”라고 말했다.

조재호 목사(기교협 부회장)의 사회로 열린 개회예배는 고하영 목사(선교협 부회장)의 기도, 임순옥 목사(회의목서기)의 성경봉독, 유영섭 목사(이사장)의 설교 순으로 진행됐다.

유 목사는 삼 7~11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잊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셨지만, 다시 긍휼히 여기셔서 옷 니엘을 세우셨다”라며, “하나님은 시대마다 예배를 마쳤다.



| 생명의 말씀 |



안 태 균 목사
• 예하성 경기지방회
• 신약학 박사(Th. D)
• 화목한교회 협동 목사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재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창세기 1:1-31

부터 시작하는 것이 옳습니다.

창세기 1장은 세 가지 키워드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 둘째, 그의 만드신 [우주 만물], 셋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입니다. 이 세 키워드의 순서에 따라 창세기 1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세기는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의 모든 말씀이 세워질 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는 우리를 포함한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을 벗어나서 살 수 없다는 선언입니다. 그런데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과 뜻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집회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이사야 14장 14절의 기록과 같은 시도가 어느 시기 이든 계속되고 있습니다. 원인이 뭐예요? 사단에게 미혹되어 금단의 열매 앞에 선 하와처럼, 나를 중심으로 바라보면 하나님과 금하시는 것

들은 하나님과 꽤 괜찮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2장 17절은 거기에 죽음이 있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중심이고 말씀은 그 생명의 울타리와 같습니다.

둘째, 창세기 1장의 두 번째 키워드는 [우주 만물]입니다.

창세기 1장에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절로 있게 생성되는 우주 만물의 역동성이 가득합니다. 그 창조의 모든 단계마다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감탄하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단계와 과정, 각각의 창조물은 하나님 안에서 협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사람들은 감탄하다가는 후회할 수 있지만,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기록은 자존, 불변, 영원, 무한, 전지, 전능, 편재성이라는 비공유적 속성을 지니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각각의 창조 단계와 그 단계에 포함된 모든 피조물의 존재, 활동, 과정이 비록 어렵고 힘들어 위기로 비칠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대로, 곧 최선의 길로 이루어질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셋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에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십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라는 기록에서, 남자와 여자라는 구분이 사람 안에 하나가 되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에 참여하는 것을 봅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우물을 때지는 것도, 남녀의 차이를 거부하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육로하게 하는 일입니다. 사람, 곧 남녀의 근원은 하나님의 형상에 있습니다.

이 시대의 문제는 이 순서를 역행시키려는 데 있습니다. 남녀의 견해차를 기준으로 사람을 정의하고, 그렇게 정의된 사람의 가치를 기준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재단합니다. 하나님은 일곱째 날에야 안식하셨기 때문에, 사람을 지으신 여섯째 날, 곧 여섯은 불완전 수로 해석됩니다. 28절을 보면,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땅과 바다와 공중의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십니다. 여기에서 이미 이들이 다스릴 세상의 불안한 예전이 담겨 있습니다. 이 불안한 예전은 창세기 3장에서 현실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인류의 이 어두운 전망은 그러나, 창세기 2장 1절로 3절의 기록과 같이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는 기록에서 위인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실 위안을 넘어 인류의 소망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재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이는 그 모든 운행과 섭리가 주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안식은 그의 다스리시는 모든 우주 만물의 안식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창조하고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신 일곱째 날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함께, 누리게 될 참된 안식의 때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안식의 의미는 요한계시록으로까지 확대하

여 바라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시편 121편 4절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태초부터 세말까지, 곧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시간까지, 그 모든 시간과 공간에서 일어난 역사의 과정과 결과를 주재 주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마치 그리스도 신화의 인격 신들처럼, 일시적이고 정기적인 안식의 필요성이 논의되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과의 안식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 거룩한 희생의 은혜를 통해 얻게 될 영원한 나라와 그의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어떤 과정을 거쳐, 누구에 의해,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한 기록이 사실, 성경의 줄기입니다.

함께하신 모든 분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과 이를 믿는 믿음으로 이 어려운 시간을 이겨, 새 하늘, 새 땅의 백성이 되시기를,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논평

한국교회언론회

자유민주 주권을 가지신 국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국민 여러분 정말 안녕하십니까? 국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는 한때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안녕하셨습니까?”라고 인사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녕을 한동안 잊고 사는 듯 했는데, 이제는 또 다시 “밤에 안녕하셨습니까?”라고 인사해야 하는 시대가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이며, 지금까지도 놀라우신 돌보심과 축복해 주심으로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민주화를 꽂고 ‘세계 5위를 꿈꾸는 나라’가 되어, 그야말로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가 되었다는 자금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국인의 여권(旅券)이면 전 세계 200여 국가를 북한을 제외한, 세계 어떤 나라에도 갈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대통령이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에 의하여 탄핵과 파면을 당하여, 갑자기 선거를 치루어야 하는 상황에 놓 이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분노하고 안타까워하는 국민들이 많은 줄로 압니다. 그렇다고 대통령 선거를 손놓고 한탄만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한반도를 둘러싼 여러 상황들이 복잡하고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선장 없는 배와 같이 표류하면 안 될 것입니다. 선거를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분을 대통령으로 세워야 합니다.

미국의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은 ‘민주주의는 투표를 통해 유지된다. 말이 아니라 행동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투표를 하느냐가 중요하고, 어떤 투표를 결정하느냐도 매우 중요합니다.

1. 수개표(手開票)를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번에 걸쳐 국민투표를 했는데, 개표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일부는 수개표를 하는 과정도 있지만, 표의 분류에서부터 접계까지 완전히 수작업으로 해야 합니다. 개표는 어떤 부정이나 부당한 개입이 없도록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국민들이 선거의 끝난 결과를 알고 싶어하는 것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전산시스템을 도입했지만, 여기에 여러 가지 변수가 많다는 중론(舉論)입니다. 따라서 투표소에서 참관인들이 참여한 가운데 투표 종료와 함께 개표를 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것을 국민들이 요구해야 합니다. 세계의 여러 나라에서 수개표를 진행하는 나라는 프랑스, 스위스, 캐나다, 인도네시아, 대만, 루마니아 등이 있습니다. 개표의 신속성보다 중요한 것은, 정확성과 부정의 소지를 없애는 것입니다.

2. 본투표에 참여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본투표에 앞서 사전 투표를 이틀씩이나 주고 있는데, 여기에서 여러 관리상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하고 공정한 투표가 이뤄지려면, 사전투표보다는 본투표에 절대적으로 참여하여, 국민들의 민의(民意)가 제대로 반영되고 사전 투표의 허점에 대한 논란을 종식시키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국

민들은 투표일을 한 날로 정해서 시행하는 것이 오히려 공정성과 안정성을 확보한다고 판단합니다. 최근 발간된 ‘부정선거 해부학’이라는 책에 의하면, 관내 사전투표에서는 ‘표더하기’ 조작 메커니즘과 관외 사전투표에서는 ‘표더하기’와 ‘표버리기’ 조작 메커니즘이 적용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투표율을 높이기 위하여 사전투표를 허용하는 경우들이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소위 ‘조작의 메커니즘’으로 시끄러운 나라는 들통니다.

3. 후보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현재 대통령 후보 가운데 유력한 두 후보는 어릴 때 기간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그러나 두 후보는 그 기간의 밀바닥에서 처리하는 방식이 정반대라고 합니다. 한 후보는 이를 긍정적으로 승화시켜 지난 속에서 인간에 대한 애정을 체득하고 불의와 싸우는 전사가 되었고, 부정부패에 조연한 청정인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또 용감하게 자신이 신봉하던 사상이 잘못됨을 알고 전향하였으며, 권력을 위해 정치하는 것이 아니라, 대의에 헌신하고 애국을 위한 정치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민주화운동을 했지만, 민주화 보상금을 받지 않은 아주 소수 사람 가운데 하나라고 합니다. 그는 오랫동안 정치 활동을 했으나, 지금도 정렬합니다. 그는 자신을 고문하고 박해한 사람을 용서하였고, 분노와 증오를 버렸다고 합니다.

반면에 다른 후보는 수많은 문제점과 심지어 언론에서는 ‘총통의 징후’가 보인다고까지 우려합니다. 대통령은 나라의 얼굴이며, 수준이며, 인격이며,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또 자신을 위한 권리 쟁취가 아니라, 국가를 위한 혁신과 장래를 생각하는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나라의 운명을 가를 지도자를 선택하시는데, 신중하시고, 과감하시기 바랍니다.

4. 공약을 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정치적인 정책을 보면 나라의 장래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기호 1번 후보는 5·18정신을 헌법에 수록, 대통령 임기 4년 연임하고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 국무총리를 국회가 추천, 대통령 및 직계가족의 범죄 관련 범안 거부권 금지, 비상계엄, 계엄선포 국회 통제 강화, 수사기관과 중립적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필수,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지방자치권 보장 위한 한법기관 신설 등을 주장합니다.

반면에 기호 2번 후보는 차기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 대통령 4년 중임 직선제 도입, 대통령 불소주 특권 폐지, 대법관 및 헌법재판관 중립, 독립성 확보, 국회의원 불체포 면책 특권 폐지, 국민 입법제 국회의원 소환제 도입, 국회 권한 남용 견제 방안 강구 등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한 후보는 상대적인 권력을 박탈하려고 하고, 다른 후보는 권력자의 권력을 내려놓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민주주의의 요체인 ‘삼권분립’을 확립할 것인가가 명확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른 분야의 정책도 품질을 살펴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5.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면 안 됩니다.

진보 정당에서는 지난 20여년간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차별금지법의 핵심은 동성애를 차별하지 말라는 것이며, 이를 어길 경우 심각한 벌금과

인신구속을 법률 내용에 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동성애에 대하여 차별하거나 불이익을 준 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동성애 권리’으로 차별금지법을 주장하는 것은 대다수 국민들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다행히 지금까지 국민들과 기독교와 시민단체들의 반대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지금까지 미뤄왔습니다. 그런데 한 후보는 차별금지법을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말이 좋아 ‘차별금지’이지, 가정과 사회를 망가트리는 흉기 될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절대 반대합니다.

6. 국민의 주권 행사인 투표는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그 사람이 그 사람이지, 별다른가?’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정치와 정치인에 대한 존경과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주권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투표는 총알보다 강하다’고 했습니다. 또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인 베라 오마리는 ‘모든 변화는 한 표에서 시작된다’고 하였습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은 ‘무지한 선택은 무서운 결과를 만듭니다. 공부하고, 생각하고, 투표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6월 3일 대통령 선거에 참여하되, 당일 투표에 참여하고, 수개표가 이뤄지도록 요구하고, 자유민주주의와 한국의 운명과도 같은 자유민주 정치화를 이루고 진정으로 국민을 사랑하고, 국가 발전을 이를 후보를 대통령으로 선출해야 합니다.

• 국민 주권 포기하면, 국가 장래 망가진다!
• 투표는 당일에, 개표는 현장에서 수개표로 하자!
• 후보 잘못 선택하면 5년간 유품에 시달린다!
• 우리 아이들에게 자랑스럽게 여길, 후보를 선택하자!

2025년 5월 28일

(사)한국교회언론회

보수 진영 단일화 호소

전기총연·보수기독교단체들, 김문수 후보 지지 선언

“도덕·책임·통합의 리더십 갖춘 준비된 지도자”

기독교 연합기관인 ‘사단법인 전국 17개 광역시도 226개 시군구 기독교총연합회’(이하 전기총연)와 전국 보수기독교 300개 단체연합이 지난 5월 23일(금)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차별금지법, 단호히 반대하는 지도자

먼저, 발언을 한 고령석 대표(동성애반대연합)는 “우리는 국회의 비양심적이고 반민주적인 악법을 온몸으로 막아왔다”며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경우, 이러한 법안들에 대해 단호하게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 믿는다”라고 했다. 고 대표는 특히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낸 데 있어 한국교회의 기여가 커다”며 “일부 목회자들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사회주의 성향에 기울어가는 행보이다. 이는 자가당착에 불과하다”고 했다.

아울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고, 대한민국을 발전시켜 온 근본적인 가치를 지킬 수 있는 인물은 김문수 후보”라며 “지금은 절체절명의 시기로 국민 모두가 제대로 된 한 표를 행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직과 소신의 리더십, 자유민주주의 수호할 적임자

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며, 자유민주주의와 기독교의 가치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후보임을 강조했다. 안 대표는 “우리나라는 어려운 시기마다 한국교회와 기독교는 중대한 역할을 해왔다. 특히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낸 데 있어 한국교회의 기여가 커다”며 “일부 목회자들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사회주의 성향에 기울어가는 행보이다. 이는 자가당착에 불과하다”고 했다.

끝으로 김 대표는 “김문수 후보는 자유와 책임, 정의의 공동체 정신을 포괄하는 국가 비전을 갖춘 강직한 지도자”라며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 젊은 세대가 희망을 품을 수 있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김 후보를 21대 대통령으로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통일 시대 이끌 지도자

마지막으로 김동구 대표(통일과미래비전)는 “김문수 후보는 친중·친북 세력 앞에 굴복하지 않는 장관 이었다”며 “그의 소신 있는 행보로 인해 국민은 이미 그를 국가와 국민의 미래 지도자로 인식하고 있다. 민심과 천심을 얻은 지도자”라고 했다. 이어 김 대표는 김 후보의 지도자적 자질로 세 가지를 꼽았다. 그는 “첫째로, 고통 받는 이들과 가난한 자, 눈물 흘리는 백성들의 아픔을 어루만질 수 있는 지도자이며, 둘째는 치열한 국제 경쟁 속에 서도 국가 경제를 이끌 역량을 갖춘 인물”이라고 했다.

이어 “주 52시간 노동법이 산업 전반에 침체를 불러왔고 기업 경영의 경쟁력을 저하시켰다”며 “첨단 반도체 산업을 강조하며, 유연한 노동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 섹션으로 김 대표는 김 후보의 국가관과 역사관을 언급하며 “자유민주주의 정신은 물론 건국 대통령 이승만의 애국 정신을 계승한 지도자”라며 “우남 이승만을

연구하며 정치 철학을 키워왔으며, 변화가 필요한 대한 민국 정치에 개혁을 이끌 적임자”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끝으로 “김문수 후보는 다가올 통일 시대를 열 수 있는 확실한 인물”이라며 “보수 진영의 단일화를 위해 김 후보와의 연대를 호소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선언문 낭독 순서가 진행됐다. 단체들은 전기총연 대표인 임영문 목사가 낭독한 지시언문에서 “2025년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는 시대적 위기를 지나고 있다. 정치와 정책은 본래 공동체의 선을 지향해야 하지만, 지금의 현실은 물질 중심의 포퓰리즘이 국가의 방향을 왜곡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정체의 기준이 얼마나 나누느냐, 누가 더 좋을 수 있느냐에 맞춰지고, 국민의 판단은 점점 단기적인 이익에 의해 흔들리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단순한 물질공동체가 아니다. 우리는 자유와 책임, 윤리와 공동체 정신 위에 세워진 나라”라며 “지금 우리가 겪는 것은 경제만의 위기 아니라, 가치와 정신의 기반이 흔들리는 위기”라고 했다. 이어 “이러한 때, 정치가 무엇을 말하고 어떤 방향을 제시해야 할지 분명해야 한다”며 “김문수 대통령 후보는 국가는 공동체를 선한 방향으로 이끌 책임이 있다”고 말하며, 국민에게 진실을 말하고 책임을 감당하는 정지를 실천해 왔다”고 했다. 더불어 “그는 노동 현장에서부터 약자의 결에서 함께했으며, 경기도지사, 국회의원으로서



신임 총회장 엄하석 목사(좌)와 직전 총회장 김영준 목사



신 임원진 – 우로부터 총회장 엄하석 목사, 부총회장 이인호 목사, 총무 오세준 목사, 서기 문찬우 목사, 재무 최정식 목사, 회계 백영자 목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롬 12:2)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자…WEA서울총회 반대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제74차 정기총회 개최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제74차 정기총회가 지난 5월 19일(월) 일천여 명의 총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은혜와진리교회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롬 12:2)라는 주제로 개최됐다.

총회는 이날 전쟁과 기근, 핵 위협 등 세계정세의 위기 속에 국가안보와 평화정책을 위해, 화해와

협력의 바다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또한 한국교회에 깊숙이 침투해 무감각해진 종교다원주의 사상과 혼합주의를 비롯, 이단 사이비를 배격하고 오직 진리의 말씀을 사수하기 위해 헌신할 것을 다짐했다.

본지는 74차 정기총회 광경을 화보로 엮는다...〈편집자 주〉



말씀을 증거하는 세계AG 총회장 도미닉 요 목사



총회 기록서기



목사고시합격자 인준



은혜와진리교회 장로성가단의 찬양



선교사 인사



등록접수



신임 지방회장 인준

순서를 맡은 이들 - 총회 진행순서



근속패

홈페이지 : www.ucts.org

2025학년도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예수교대한
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신·편입생 모집

● 설립취지

본 예하성 사이버신학연구원은 사령은 있으나 지역적, 시간적 여건 등으로 출석 수업을 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한 신학과정입니다. 소명의식을 가진 분이라면 누구나 언제든지 입학할 수 있으며 본인 스스로 온라인(인터넷)으로 교과목을 수강하여 이수학점을 취득함으로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1. 지원자격

학 과	수업연한	지원자격
신학과 (신입생)	3년 6학기 (140학점)	1. 만18세 이상인 성인 남녀 2. 소명의식이 있는 자 3. 신앙경력 5년 이상인 자
신학과 (편입생)	2년 4학기	1.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2. 본 교단이 인정하는 타 신학교에서 편입하는 자 이수한 학점에 따라 학년 결정

3. 전형안내

- ①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 ② 서류심사 및 면접 : 수시
 - ③ 전형료 : 20,000원
- 계좌번호 : 국민은행 061737-04-005354(예금주 사이버신학연구원)

4. 접수방법

- ① 우편 또는 방문 접수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예하성 사이버신학연구원)

5. 특전 및 기타사항

- ① 졸업 후 전도사 임명자격 부여
- ② 총회목회대학원 입학자격 부여
- ③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교무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학상담 및 문의

교무처 : 02)2678-5181 e-mail : ucts5181@naver.com

5월 월례회 늘푸른교회서 개최

“공평하신 하나님” 말씀 따라 바른 목회 다짐

충북지방회

충북지방회(회장 김윤배 목사)는 지난 5월 12일(월), 늘푸른교회(윤광진 목사)에서 5월 월례회를 가졌다.

1부 예배는 김진호 목사(진리와사랑교회)의 사회로 시작되어, 신현찬 목사(기쁨종중교회)의 기도, 윤광진 목사의 설교, 김윤배 목사(중앙샘교회)의 축도로 이어졌다.

윤광진 목사는 민수기 20장 10~13 말씀을 본문으로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했다. 윤 목사는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을 때 예외 없이 째망을 받았다”며, “우리 목회자들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야 하며, 올바른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권면했다. 설교 후에는 오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의 공정한 진행과 국가 안정을 위해, 아울러 교단과 지방회, 소속 교회와 목회자들의 바른 사역을 위해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진 2부 월례회의는 지방회장 김윤배 목사의 인도로 진행되었다. 조재호 목사(창대교회)의 기도 후, 직전회장 이문근 목사(이 목순복음교회)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으며, 각종 보고사항을 유인물 대로 접수하고 교단 총회 및 지방회 목사안수식 일정을 공유했다.

또한, 근속 30년을 맞이한 김경준, 신병설, 윤광진 목사에게 축하의 인사를 전하고, 모든 순서를 마무리했다.

예배와 회의 후에는 늘푸른교회에서 정성껏 준비한 풍성한 만찬과 선물이 참석자들에게 제공되어, 따뜻한 교제와 나눔의 시간을 가졌다.



●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무처 02)2678-5181

제21대 대통령선거에 대한 한기총 입장문

“국가와 자신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투표에 참여합시다”

투표는 헌법에서 보장한 참정권으로 국민에게 주어진 중요한 권리 중 하나이다. 투표를 통해 정치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뿐 아니라 개인의 의사를 국가 정책과 방향성에 반영시킬 수 있게 된다.

대통령선거는 국정의 최고 책임자를 뽑는 선거이며, 선거를 통해 후보자 중 누가 더 적임자인지를 선택하는 것은 국가와 자신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후보나 정당 그리고 유권자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선거를 준비해야 함은 분명한 사실이다. 서로를 향한 비방과 네거티브로 유권자를 자극하는 것은 과거에 얹어매는 것일 뿐, 미래를 위한다면 정책 선거로 가야 한다.

각 후보의 정책과 공약, 실현 가능성 등을 비교하며 결정해야 하겠지만, 교회와 관련된 정책 등에 있어서는 적극적인 의사 개진도 필요하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도 엄청난 파급효과가 있고, 특히 선거 때에는 반대하다가 당선이 되고 난 이후에 말 바꾸기 행태를

보였던 과거를 돌아볼 때, 더욱 분명한 입장 표명은 미래를 위한 행동이라 할 것이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공명정대한 선거가 되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교회와 관련된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국민들(유권자)께

1. 유권자로서 국가와 자신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투표에 참여합시다.

2. 올바른 선택을 위해 후보자, 정당 등의 정책과 공약을 비교하고, 실현 가능한 공약을 제시한 후보를 선택합시다.

후보자와 정당은

1. 근거 없는 허위사실이나 비방, 흐름선전으로 국민의 의사를 왜곡하지 말고 바르게 경쟁합시다.

2. 정책으로 선의의 경쟁을 하여 유권자의 마음을 얻도록 노력합시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1. 동성애, 동성혼을 반대하며 포괄적 차별금지법 등 이와 관련한 입법 행위를 규탄한다.

2. 저출생 문제에 대한 분명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모든 생명이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로 만들어 가야 한다.

3. 공권력에 의한 교회 탄압을 규탄한다. 교회와 목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공권력 남용으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4. 성경적 가치에 따라 설립된 종교 사학에 대한 과도한 국가개입을 반대한다.

5. 정치적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 승자독식 구조를 타파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변혁을 공약하라.

6. 표(票)만을 생각하고 말 바꾸기 행태로 국민과 기독교인을 우롱하는 진정성 없는 후보를 반대한다.

2025년 5월 16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고경환 목사

“교회 압수수색은 종교탄압... 대선은 대한민국 미래 가를 중대 기로”

한국다음세대훈련원은 지난 5월 24일(토) 오후 서울 대문원 앞에서 ‘삼권분립 밑살과 교회 압수수색 등 종교탄압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에는 손현보 목사(부산 세계로교회), 김진홍 목사, 윤상현 의원, 전한길 강사 등이 연사로 나서 자유민주주의와 종교 자유 수호를 촉구했다.

손현보 목사는 “자유는 결코 저절로 지켜지지 않으며, 저항과 참여를 통해 유지된다”며, “최근 압수수색을 직접 경험하면서 표현과 종교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음을 절감했다. 과거 독재보다 더한 탄압이 벌어지고 있다”고 규탄했다.

그는 군 복무 시절 예배를 드리다 억압받은 경험을 소개하며, “자유는 희생과 싸움 속에서만 지켜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진홍 목사는 다가오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에 대해 “단순한 후보 선택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미래를 좌우하는 역사적 선택”이라며 “이번이 대한민국의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도자가 갖춰야 할 다섯 가지 덕목으로 비전, 설득력, 열정, 정직한 일관성, 실천력을 제시했다.

윤상현 국회의원(국민의힘)은 “세계로교회와 손 목사님에 대한 압수수색은 단순 수사가 아닌 기독교 전체에 대한 탄압”이라며, “이는 정교분리 원칙을 위배한 폭거이자 사법 정의의 붕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부당한 표적 수사와 공권력 남용은 헌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전한길 강사는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를 지키기 위한 중대한 분기점에 서 있다”며 “정치, 언론, 문화 전반의 한쪽으로 기울어진 상황에서 올바른 지도자를 선출하지 못하면 국가 미래가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부산 세계로교회 압수수색은 종교 자유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며, 법치와 표현의 자유, 삼권분립이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전 강사는 “다가올 대선은 단순한 선거가 아닌, 미래 세대에 어떤 대한민국을 물려줄지 결정하는 선택”이라며 갈라리아에서 6장 9절을 인용, “낙심하지 말고 자유와 정의를 지키자”고 호소했다.



설난영 여사의 찬조연설에서 김문수를 보다

최원호 박사의 ‘진심이 거짓을 이긴다’



5월 24일,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식 방송연설에 김문수 후보의 배우자 설난영 여사가 찬조연설자로 나섰다. 정제된 수사도, 선거 전략도 없었다. 다듬어진 언어 대신, 45년을 함께 살아온 한 사람의 진심이 마이크 앞에 섰다. 그리고 그 고백은 그 자체로 한 편의 다큐멘터리였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인간적인 메시지는 정치인이 아닌, 김문수 아내의 입에서 나왔다. 설 여사의 연설은 정치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다시 묻게 했고, 김문수라는 사람의 본모습을 가장 진솔하게 드러내는 ‘삶의 증언’이었다.

그녀는 정치인도, 대중 연설가도 아니었다. 그러나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그를 지켜본 동반자로서, ‘말’이 아닌 ‘삶’으로 증명된 한 사람을 국민 앞에 내놓았다.

김문수는 ‘서민적 정치인’이 아니라, ‘서민 그 자체였던 사람’이다. 그가 세진전자 공장에서 노동운동을 하던 시절부터 봉천동에서 책방을 하며 턱이소를 만들던 시절까지, 그의 삶은 항상 사회적 약자들 곁에 있었다. 단순히 서민을 위한다는 구호로 포장된 정치가 아니라, 그들과 함께 땀 흘리고 울며 만들어 낸 정치였다. 이것이 바로 김문수 정치의 뿌리이며 출발점이다.

그녀는 아버지로서도, 남편으로서도 정직한 사람이었다. 감옥에 갇힌 몸으로 창살 너머 다섯 살 딸과 면회를 하며 작은 과자 장난감을 건네주던 그 장면은, 정치적 이미지로 만들 수 있는 연출이 아니다. 그것은 ‘삶의 진실’이며,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가장 깊이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그의 딸은 지금도 그 장난감을 간직하고 있다. 정치는 결국 이런 사람의 손에서 시작돼야 한다.

김문수는 높은 자리에 있어도, 낮은 자리의 눈물을 기억하는 사람이다. 장관이 돼도 전철을 타고 다녔고, 도지사가 돼도 벤인카드 하나 함부로 쓰지 않았다. 그의 청렴은 강요된 금욕이 아니라, 내면의 질서였다. 그는 법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눈을 두려워한 정치인이었다. 그래서 오해받을 일조차 만들지 않았다. ‘돈을 무서워하는 사람’이라는 설난영 여사의 표현은 김문수의 진면목을 가장 정확히 드러낸다.

그리고 그는 ‘울보’였다. 위기 가정에게 트럭을 전해주며 함께 울었고, 한센인들의 꼬마손을 잡고 울었

고,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 한글 학습장을 만들어 주며 울었다. 그의 눈물은 연민이 아니라 책임에서 흘러나온 것이었고, 그 눈물은 실제 정책으로 구현됐다. 도지사 시절 시행한 ‘무한돌봄 사업’은 그 눈물이 만들어낸 제도적 연대였다.

그들은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자리에서 오히려 법 위에 군림하려 했고, 수십 건의 의혹 속에서도 책임을 회피했으며, 도덕적 질문 앞에서 늘 남 탓과 정치보복을 외치며 ‘방탄 입법’과 ‘방탄 탄핵’에 기대고, 급기야 방탄복과 방탄 유리를 방패 삼아 국민 앞에서 숨었다. 이처럼 국민을 기만하고, 정치를 사유화하며, 정권을 전리품처럼 다루려는 자들이 다시 권좌에 오른다면, 대한민국은 더 깊은 위기로 빠져들 것이다.

더는 이런 거짓과 기만이 반복돼선 안 된다. 이제는 거짓을 능력이라 착각하지 않는 국민, 말이 아닌 삶을 보고 선택하는 국민이 되어야 한다. 김문수는 단지 ‘정직한 후보’가 아니다. 그는 이 시대가 요청하는 도덕성과 신뢰의 표상이다.

그의 눈물은 위선이 아니라 진심이며, 그의 침묵은 회피가 아니라 절제였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야망보다 암시, 강한 언성보다 조용한 책임이 필요하다. 정치는 사람의 품격에서 시작된다.

이런 인물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다! CT© 최원호 목사(은혜제일교회, 심리학박사)

“샬롬나비, 영등포역 광야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배식 봉사”

샬롬나비(상임대표 김영한 박사)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지난 5월 24일(토) 영등포역 광야교회를 방문했다. 참가한 김영한 대표와 회원들은 광야교회에 사랑의 쌀을 전달한 후, 성도들과 함께 천막 막사에서 예배를 드리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점심을 나누는 배식봉사에 참여했다.

광야교회(임명희 담임목사)는 38년째 영등포 지역 쪽방 등 주변 어려운 이웃과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꾸준히 섬기고 봉사하고 있다. 매일 점심과 저녁 식사도 제공하고 있으며, 이날도 성도들과 예배하고 250여 명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점심 식사 배식 봉사를 시



행했다. 특별히 매주 토요일 배식 봉사에 참여하는 모임, ‘5060 미중년’이 함께 하여 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예배는 샬롬나비 중보기도 이사 최성대 목사(라이프영성원 교수)의 사회와 기도로 진행되었고, 샬롬나비 공동대표 이상원 목사(월드부 대표주간)가 ‘무엇이 더 중요한가’(마 2:1-12)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설교 후 김영한 상임대표와 광야교회 임명희 목사의 인사가 있었고, 이어서 샬롬나비 종무 이관표 박사(한세대 교수)의 샬롬나비 행동강령 제정, 육호기 목사(GMS 원로 선교회 회장)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이상원 목사(샬롬나비 공동대표)는 설교에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행하신 죄사함과 구원의 의미를 전하였다.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치유도 행하셨지만, 죄사함을 선언하시면서 영혼 구원도 강조하셨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사는 동안 육신의 평안함도 필요하지만 죽은 후에 영원한 구원을 주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도록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표인사에서 김영한 박사는 “영등포역 노숙자들 위해 38년 차 예배와 급식하고 있는 동력을 광야교회가 보여주는 예수 사랑이며, 예수님은 2천 년 전 각 종 병자들 고치시듯이 오늘에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구제주가 되신다”고 격려했다.

‘차별금지법 등 3대 쟁점: 김문수·황교안 ‘반대’, 이재명 ‘유보’

기독교계 및 보수 성향 단체들, 정책질의 결과 발표

17개광역시도약법대응본부, 거룩한방파제통합국민대회, 진평연, 동반연 등 700여 기독교계 및 보수 성향 단체들이 연대한 ‘올바른 대통령을 원하는 단체 연합’(이하 올대연)이 지난 5월 29일(금)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1대 대통령 선거 정책질의 결과를 발표했다.

올대연은 이번 대선에서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돋기 위해 각 후보에게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동성결혼 합법화 △성전환 수술 없는 성별정정에 대한 입장을 질의했고, 이에 권영국(민주노동당), 황교안(무소속), 송진호(무소속) 후보가 직접 응답했다고 밝혔다.

응답 결과에 따르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명확

하게 ‘반대’ 입장을 밝힌 후보는 김문수(국민의힘)와 황교안, 진성’ 입장을 밝힌 후보는 권영국과 송진호였다.

김문수 후보는 올대연 질의에 대한 서면 답변은 하지 않았지만, 공개 연설 등을 통해 반대 입장을 밝혀 온 점을 근거로 ‘반대’로 분류됐다. 김 후보는 5월 20일 연설에서 “성소수자라는 이유만으로 취업에 특혜를 준다면 성소수자가 아닌 사람들에게 오히려 역차별”이라며 “민주당 의원들이 밸이했던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뿐 아니라 범죄 전과자까지도 보호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어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법 대로라면 조두순이 초등학교 수위를 해도 막으면 차별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 사안에 대해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한편 동성결혼 합법화에 대해선 황교안·송진호 후보가 반대, 권영국 후보가 찬성 입장을 밝혔으며, 이재명 후보는 보유적이었고, 김문수·이준석 후보는 입장이 확인되지 않았다.

‘성전환 수술 없는 성별정정’에 대해선 황교안·송진호 후보가 반대, 권영국 후보가 찬성했다. 이재명·김문수

후보는 이 사안에 대해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올대연은 “세 가지 질의는 참여 단체들이 가장 우려하는 핵심 사안”이라며 “후보자들이 정책에 이를 반영해 달라는 요청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후보 측에 서 향후 공문으로 수정 의견을 보내면 공식 입장 여부를 확인한 뒤 결과를 업데이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주국제학교, 제17회 졸업식 성료 “빛과 소금의 인재로 성장하길”

중국 정주에 위치한 정주국제학교(이사장 이후진, 교장 이수아)가 지난 5월 17일 제17회 졸업식을 개최하고, 한국 학생 10명의 졸업을 축하했다.

이번 졸업식에는 학부모와 동문, 교민 등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축사와 장학금 수여, 감사패 전달 등이 진행됐다.

이후진 이사장은 환영사에서 “졸업생들의 앞날을 축복한다”며 지속적인 응원과 기도를 요청했다.

배우 한인수 흥보대사는 축사를 통해 “푸른 날개로 창공을 날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격려했고, 박호인 학부모회장은 “학부모들이 한마음으로 돋고 있다”며 학생들을 응원했다.

졸업생 가운데 박경한·최아연·김주환 학생이 우한총

영사상을 수상했으며, 다양한 장학금도 수여됐다. 졸업생 대표는 “더 멋진 모습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는 인재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같은 날 열린 ‘학부모 초청 학교 탐방 행사’에서는 60여 명의 학부모들이 캠퍼스를 둘러보며 학교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한 학부모는 “복단대에 진학한 조카를 보고 확신이 생겼다”고 말했다.

정주국제학교는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까지 수시 입학이 가능하며, 선교사 자녀와 성적 우수자 대상 장학제도를 운영 중이다. 졸업생들은 북경대, 청화대, 연세대, 고려대 등 중국과 한국 명문대에 진학하고 있다.

문의: 중국 186-3801-3570 / 한국 010-4932-2004



2025 기대나무 스쿨 협력기관 사역자 워크숍

기아대책,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스쿨사역 협력기반 강화



시간으로 마련됐으며, 기대나무 스쿨 사역에 함께하는 전국 13개 협력기관의 사역자 33명이 참석했다.

워크숍에서는 기아대책의 선교 모델인 VOC(Vision of Community) 교육을 비롯해, 신설된 ‘이주민 선교사 제도’ 소개, 각 기관 사역 공유 및 상호 교류 시간을 가졌다.

최창남 회장은 “국내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은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을 위한 사회적 관심과 정책적 지원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라며, “기대나무 스쿨은 단순한 교육 프로그램을 넘어, 이들을 복음 안에서 회복시키고, 가정과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선교적 거점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기아대책은 올해 VOC에 기반한 사역 내실화를 바탕으로, ‘이주민 선교사 제도’ 도입, 프로그램 고도화, 모금 협력체계 마련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전국 주요 도시로 기대나무 스쿨 협력 센터를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워크숍은 기아대책과의 긴밀한 사역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고 이주민 선교의 방향성을 함께 모색하는

가족세트전도

박영수 목사 // 평내순복음교회, 가족세트전도 아카데미 원장

사명의 그릇과 명암

저 숲속에 자기로 살아온 그릇이 담아 있고, 희미하고 아련히 스쳐간 회색빛 자신의 명암이 누워있다.

아, 은빛 나그네에 한 발작 한 발작 석양 길 따라 높은 하늘 거침없는 세풍(細風)되어 흉훈을 머리에 이었다. 그리고 노을의 강어귀 한 때의 이름 모를 철새들의 긴 호흡이 이어진다.

아 세월이여 그대의 몸으로 다투지 말라. 오늘 나는 깊은 사명의 고랑에 파여 흉훈의 쟁기 들고 나를 치기에도 지칠 줄 모른다.

지난 한해의 새 걸음이여 이제 올 한해도 이름 모를 철새의 길을 가려는가. 욕심 없이 순걸을 벗 삼아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리라. 지금 이대로의 모습으로 삶의 굽이굽이 맛보리라.

구비 구비 삶의 젖은 곳 내가 선 이곳이여, 냉두리가 아닌 좋은 보석이라 예수 따라가는 길 참 보석이라.

이번 주는 경상도 지역에 성시화를 위해 달려갔다. 월요일 가족세트전도 총재 박영수 목사는 목회자들 모임에 주강사로 전도특강을 통해 은혜를 받은 목사たち

—점심시간에 종업원과 주인을 영접기도 하는데 크게 도전을 받았고 그중 그 교회 담임목회자가 새로운 각오를 하면서 박영수 목사를 통하여 인수를 구구 받아 전도를 전수 받겠다 하였다.

또한 신학교에 전도학 강사로 강의를 마치고 공원에서 전도하다가 신학생이 인수 받겠다고 하여 한분만 하였는데 서로 서로 전체가 인수를 받겠다고 모든 신학생들이 줄을 서서 공원에서 인수가 펼쳐졌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의성에 내려와서 노매실 구세군교회 전도행전이 마을마다, 회관마다 영접기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가 있음을 고백하면서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전도활동은 새로운 영력으로 무장케 한다.

가족세트전도 총괄사무총장 이수 교수

평내순복음교회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121-10
031)592-1691, 010)3730-2573



국가핵심전략 ‘아동정책 4대 제안’ 발표

월드비전, 국가 아동정책 방향성 제시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회장 조명환)은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가 아동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아동 정책 4대 제안’을 발표했다고 지난 5월 22일(목) 밝혔다.

이번 제안은 저출산·고령사회에 직면한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아동의 권리 증진과 복지 향상을 국가 정책의 중심에 두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월드비전은 △유엔아동 권리협약에 근거한 국내 아동권리 보장체계 마련을 위한 아동기본법 제정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미래세대를 위한 복지 확대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지원 체계 수립 △기후위기 취약계층 아동 보호 및 아동 친화적 재난 대응 체계 구축의 네 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월드비전은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 기후위기 취약 아동, 자립준비청년 등 다양한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청소년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왔으며, 이번 제안은 그간의 사업 경험과 정책화 노력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조명환 회장은 “기후위기, 저성장과 양극화, 저출산·고령화 등 복합적 위기 속에서 아동은 인구 비중은 작지만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집단이다. 아동을 위한 정책은 선택이 아니라,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핵심 전략이 되어야 한다”며 “월드비전은 차기 정부가 아동을 사회의 중심에 두고, 법과 예산, 서비스 전달체계 등 모든 제도적 기반에서 아동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국가 시스템을 구축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음세대를 위한 섬김과 헌신 도서관 리모델링

아신대학교 도서관 환경 개선 학습자 중심 도서관으로

서울광업교회가 아신대학교 도서관 환경 개선을 위해 후원한 리모델링 프로젝트(마물고 싶은 신학교)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이번 후원은 2층 열람실 공간의 리뉴얼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학생들에게 보다 따뜻하고 편안한 학습 환경을 제공하고자 추진되었다.

2025년 5월 15일부터 2일간 진행된 공사는 원목 열람 테이블과 의자 교체, 조명 개선, 공간 배치 재정비 등이 포함되었다.

아신대학교 도서관 관계자는 “서울광업교회의 후원으로 학생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하다”며 “이번 리모델링은 단순한 시설 개선을 넘어, 학습자 중심 도서관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광업교회는 그간 국내외 다양한 교육 및 선교 기관에 대한 후원을 지속해왔으며, 이번 도서관 리모델링 후원은 다음 세대를 향한 섬김과 헌신의 연장선으로 이뤄졌다.

아신대학교는 이번 후원을 계기로, 더 많은 외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대학 도서관의 질적 향상과 지역사회 기여를 이어갈 계획이다.



스포츠 선교회 걷기동우회 모임안내

- 11시00분 : 예배 및 기도회
- 13시00분 : 점심식사
- 14시30분 : 맨발 걷기
- 16시30분 : 차와 은혜 나누기
- 17시30분 : 식사 후
다시 목회 현장으로

• 일시 : 2025년 6월 9일(월) 오전 11시

• 장소 : 은혜와진리교회 전원성전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세곡리 120(왕림2길 76)

TEL: 031)227-5992-3

• 대상 : 본 교단에 소속된 목회자로서
교단을 사랑하고 교단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길 원하시는 분

• 문의 : 정영진 목사 010-3590-3156



믿음으로 생각 깊은 곳으로

이억주 목사 // 한국교회언론회 명예대표, 논설고문, 전 칼빈대 교수, 대석교회

무당이 주님께 돌아오다



우리나라 선교 초기의 평안도 정주에 시각장애인이며 박수무당인 백사겸 이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굿을 잘해서 돈을 많이 벌어들여서 부인 외에 여성, 청을 둔 무당이었습니다. 하루는 굿을 하는데 한 선교사가 구경을 하고 있었습니다. 무당은 아무리 용을 써도 귀신이 안 내려 땀을 뻘뻘 흘렸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는 “자식을 망하게 하는 무당 짓을 그만하고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라고 말하였습니다. 선교사가 떠나고서야 귀신이 내려 겨우 굿을 마쳤습니다.

무당은 귀신보다 더 큰 신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자식을 망하게 한다”라는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아 너무도 불안했습니다.

다음날 선교사를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자식이 잘될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선교사는 “예수를 믿으면 자식이 잘되고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는 무

당 일을 청산하고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마침 교회가 건축을 하게 되었는데 돈이 없어 공사를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무당 일을 하여 번 돈으로 사놓은 땅을 팔아 교회에 건축현금을 하여 예배당을 완공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에 자신의 재산을 몽땅 헌금한 후 교회의 사찰 일과 후에 리드(Reid) 선교사의 조사(전도사)를 하면서 많은 이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였습니다. 그의 별명이 조선의 삭개오라고 불려졌습니다.

선교사는 백사겸 이들이 똑똑함을 알고 그 아들을 미국에 데려가 공부시켰습니다. 프린스턴대학교와 예일대학교에서 공부하여 박사학위를 받고 귀국하여 연세대학교 총장, 교육부장관을 역임했습니다. 백낙준 박사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 대까지 은혜를 베풀느니라” (신 5:10)

초대시

전혜수 // 은혜와진리교회 권사

감격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
그분과 시선이 마주쳐 일어나는 사랑의 불꽃
그 환한 빛 내 속에 들어오니
소리 없이 사라진 내면의 어둠들

빛을 받아들인 성한 눈을 나는 가졌는가!
내 영혼은 내 주 하나님과 만났는가!

하나님과 시선이 만났을 때
내 가슴이 두근거림과 요동치는 가슴으로
큰 호흡이 필요했던가!

만남이 시작된 그 순간부터
설레이던 마음이 아직도 계속되는가!
자꾸만 그 감동이 살아나는가!

온종일 그분 생각에
삶이 즐겁고 마냥 행복한가!
드디어... 그 빛이 내 안에 들어왔구나.

결단코... 만나야 할 분을 만났구나.
alleluia... 은혜의 성령님 내 안에 계심이라.
아멘... 그분의 자녀된 것 확실하구나.



마 6:22-23 올해 예수님 만난지 40년
그 첫 만남의 감격을 오늘도 누리며
감사합니다.

교회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무너진 신뢰를 복원시키는 중요한 사명을 안고 있다.

교회를 적대시하는 사상을 가진 사람이나 교회에 유해한 법을 만들거나 이를 둑과하는 사람들을 지지하는 등의 행위, 종교대원주의와 인본주의적 신학사조와 세속화의 경향을 따르는 것을 죄악으로 여기지 않는 교회와 목회자, 무슨 범죄를 저질렀어도 개의치 않는 사람들은 정상적인 신앙인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말씀에 바로 선 한국교회는 그동안 국민의 안전과 자유로운 신앙을 위해 자유민주주의를 지지하고 수호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이는 나라가 안정되어야 평안하고 자유로운 신앙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기도하면 변화의 바람이 일어나고 행동하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동안 한국교회의 바른 복음 전파를 위해 헌신을 다해온 우리 교단은 세상에 신뢰를 회복하는 일에 진실과 공유의 바탕 위에 세워진 교단의 역할을 지속 나갈 것이다. 아울러 나라의 위기와 북한과의 극한 대립, 핵으로 중무장을 거듭해가는 광기 어린 북한과 어떤 혜택을 찾아내야 할지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데 한 마음 되어 기도하며 나갈 것이다.

대통령 선거 판단과 선택 기준 오직 하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 선거에도 판단과 선택의 기준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두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마 18:19)

인생길에서 무슨 일을 만나도 우리의 순을 놓지 않고 꼭 불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사람의 생각을 초월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항상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대통령 선거에도 판단과 선택의 기준을 세상에 속한 온갖 주장과 여론에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듭니다.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더 우수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분별하여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

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임을 성도들이 모두 유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그의 맡은 스스로 속이는 것이며, ‘선하시고 의로우시며 진실하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가의 내일과 국민의 삶에 중차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에 참여하여 투표하는 행위를 통하여 성도들은 자신의 신앙상을 하나님 앞에 표명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성도다운 판단과 선택을 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역자와 성도들이 6월 3일까지’ 이렇게 합심하여 기도합시다.-많이 함께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양신문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1 / 재등록 서울 다-07857 주간

• 편집고문 : 정책위원장 조용목 목사

• 발행 겸 편집인 : 편집국장 박한근 목사 • 인쇄인 : 배성한

• 연락처 : 편집국 ▶ (02)2677-9935~6, 구독문의 ▶ (02)2677-9937
광고국 ▶ (02)2675-5183 FAX ▶ (0504)027-0897
웹하드 : ID-mok677 / PW-5277, e-mail mok2677@naver.com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2 다길 5

• 본보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온라인계좌 : 국민은행 061701-04-128988 박한근

예수교대한 하나님의성회
사모회
제13회
정기총회

제13회 정기총회를
은혜가운데 마쳤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예수교대한 하나님의성회

최해선 사모
기흥교회

김양숙 사모
은혜와진리교회

김양란 사모
포항안디옥교회

차경애 사모
진주은평교회

신동신 사모
청진교회

차주연 사모
안동성곡교회

윤금자 사모
진주은혜와진리교회

김귀순 사모
아세아운복음교회

신명희 사모
부강운복음교회

이을순 사모
갈릴리큰소망교회

2025 전국사모회 전임회장단

2025 전국사모회 임원진

손선희 사모
총제은혜교회

황인경 사모
주성교회

안민혜 사모
순복음침례교

조은숙 사모
경찰청교회

김세희 사모
과천순복음교회

황복란 사모
사랑의공동체교회

김재희 사모
색종이교회

이재애 사모
주는교회

나명숙 사모
상주반석교회

이순선 사모
시은순복음교회

김길순 사모
순복음성산교회

예수교대한 하나님의성회 전국사모연합회

회장 손선희 · 총무 김세희 (010-2610-3816)

| 사모회 회비계좌 | 농협 351-1360-4767-73 김길순(재무)